

東谷 日陀 대율사의 수행체계 연구

- 三學을 중심으로 -

김종용*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II. 三學의 전제로서의 戒

III. 日陀의 定慧修行 그리고 慈悲

1. 간화선에서의 大疑團과 誦話頭·念話頭

2. 定慧수행과 自利利他

IV. 나오는 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大覺思想』 제39집 (2023년 6월), pp.81-108.

한글요약

본 연구는 삼학[三學 : 戒 · 定 · 慧]을 중심으로 일타의 수행론적 기초와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최대한 다수의 일타 관련 서적 및 인터뷰를 인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본 주제(일타 수행론)가 기초적 단계이니만큼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하와 같다. 첫째, 일타가 말하는 계율은 두 차원으로 나누어 해석되었다. 하나는 대방편으로서의 ‘계’이고, 다른 하나는 불지(佛智)에 기반한 각자(覺者)의 ‘계’이다. 방편으로서의 계는 경전 또는 선지식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따르는 것이다. 이에 범부로서의 ‘계’는 의식적이며 타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제악막작(諸惡莫作)·중선봉행(衆善奉行)하기 위함이었다.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불지(佛智)가 능히 밝은 자[覺者]는 불지에 기반하여 행하기 때문에 그 행은 곧 ‘계’와 합치는 것이며, 자율적이며 무위적인 행이었다.

둘째는 일타의 간화선 수행론에 대한 부분이다. 일타는 화두의 발심은 ‘의단(疑團)’에 기초한다고 보는데, 그 의심은 꾸준한 화두 참구에 의해서 발(發)하는 것이었다. 이에 일타는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두를 바꾸는 것을 허(許)하지 않았다. 꾸준한 화두 참구 방법론으로 일타가 제시하는 방법은 ‘송화두(誦話頭)’이다. 송화두는 일타가 도솔암 수행과정에서 실참을 통해 얻은 경험적 방법론 또는 지혜로, 송화두는 부처님 명호를 외우듯이 마음속으로 화두를 외우는 것인데, 송화두라는 용어는 일타의 고유 조어로 보인다. 송화두를 계속하다 보면 생각으로 화두를 드는 ‘염화두(念話頭)’가 되고 염화두가 지속되면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 모든 시에 화두가 성성하게 되고, 거기서 대용맹심을 발(發)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활구(活句)가 되어 참화두가 된다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일타는 참선 수행에 있어 간화선을 주로 했으며 간화선 수행 방법론으로는 화두를 끊임없이 외는 송화두(誦話頭)를 통해 염화두(念話頭)로 나아가고 염화두에서 대용맹심을 내어 한발 더 나아가면 곧 활구에 들어가게 되니 이와 같이 되던 증오(證悟)가 멀지 않다고 하였다.

셋째, 수행과 자비에 대한 부분이다. 일타는 “참선을 통해 선정에 들면

절로 고요해지고 맑아지며 밝아지게 되니 이러한 빛이 곧 대반야지혜”라 하면서 선정과 지혜는 서로 즉하여 일어나니 정(定)의 수행과 지(智)의 수행이 별도의 수행이 아니라 하였다. 이와 같은 지혜가 밝은 자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만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한 뿌리임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논리를 자세히 말하자면, 지혜가 밝혀지면 세상 만물이 본디 무상(無常)하고 연기(緣起)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대(四大)는 허상이며 십이처(十二處)는 망상임을 알아 실상(實相)을 관철하여 추호의 아상(我相)도 없게 된다. 이에 아상이 없음으로 자타를 서로 분별하지 않으니[自他不二] 자리아타(自利利他)는 능히 무위로 실현되는 것이었다.

주제어

동곡 일타, 삼학, 계율, 간화선, 불교 윤리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동곡 일타(東谷 日陀, 1929~1999)의 수행적 특징을 삼학[三學; 戒·定·慧]을 기반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의 수행적 논리와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타에 대한 연구는 국내 학술연구 3편¹⁾ 그리고 2016년 한국불교학회가 주최한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추계학술대회 6편이다. 이 9편 연구 중 일타 수행론과 관련한 연구는 김정집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동곡 일타의 생애와 수행」이 유일한데, 본 연구(「동곡 일타의 생애와 수행」)는 일타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의 수행적 기조를 충실히 조망하고 있다. 다만 일타의 수행론적 체계와 논리를 살피는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타 수행론에 대한 철학적 논의 연구는 학계에 전무 하거나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겠다. 그가 한국 근현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이다.

본 연구는 일타 수행론을 살핌에 있어 삼학에 집중하여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는 일타가 ‘계(戒)’를 우선시하되 종래에는 참선[定]으로써 수행을 완성해야 함을 일생에 거쳐 강조²⁾했고 수행의 결과로서 지혜[慧]에 의한 자비를 늘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일타는 수행체계를 설

1) 염중섭, 「한국불교의 계율적인 특징과 현대 조계종의 계율전통 -자운(慈雲)과 일타(日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제30집,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8.

김광식, 「일타의 지성적 노선과 조계종단의 좌표」, 『佛敎研究』 제46집, 한국불교연구원, 2017.

신규탁, 「동곡 일타 대종사의 불교관과 그의 선사상」, 『韓國佛敎學』 제80집, 한국불교학회, 2016.

2) 신규탁, 「동곡 일타 대종사의 선사상」,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p.324.

명함에 있어 삼학을 중심으로 설한 것이다.³⁾ 본 연구는 일타의 수행적 특징을 살피는 초기 연구이니 만큼,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타의 저서⁴⁾ 또는 인터뷰를 다수 인용하여 점진적으로 논의를 이어 갈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 및 방법론을 통해 본 주제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일타가 수행에 있어 ‘계’를 왜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삼학의 시작으로써 ‘계’의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타가 말하는 간화선의 핵심 방법론에 대한 부분과 그러한 참선[定] 수행이 지혜[慧]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 살펴볼 것이다. 셋째, 정혜 수행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불지(佛智)가 자비 또는 자리아타(自利利他)로 나아가는 논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 三學의 전제로서의 戒

일타의 계율과 관련한 행적은 30대 초반에 이미 계율 관련 글들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34살에 불교재건비상총회의 종회의원(율장부문)으로 선출되어 율장에 의거한 중헌, 중범 기초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일타는 계단위원회에서 구축계 산림에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

3) “일타는 계정혜 삼학이 불도수행의 전부라고 강조하며, 삼학이 서로 도와 증과를 얻게 되는 이치를 설명했다.” 원영, 「동곡일타율사의 계율사상」,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p.234.

4) 일타가 남긴 저서로는 『사미율의』, 『수계의법』, 『불교와 계율』, 『범망경보 살계』 5권,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시작하는 마음』,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생활 속의 기도법』, 『계율과 수행』, 『기도』,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불자의 기본예절』, 『오계 이야기』,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선수행의 길잡이』, 『일타큰스님 법어』, 『광명진언기도법』,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가 있다.

는 『수계의범』에서부터 사미들을 위한 『사미율의』와 일반 재가불자를 위한 『범망경보살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계와 율에 관한 저술을 다양하게 남겼다.⁵⁾ 이와 같은 그의 계율 사상에 대한 부분을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일타 수행에 있어 첫째 또는 근간이 되는 것은 ‘계(戒)’이다. 일타는 “모름지기 불자가 가장 먼저 지녀야 할 것도 계율이요, 가장 소중히 지녀야 할 것도 계율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마지막 열반의 순간에도 계율을 보배로이 존중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⁶⁾라 말하며 수행에 있어 ‘계’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다.

일타는, 계(戒)라는 것은 묶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묶는다는 것은 꽃이 바람에 흐트러져버리지 않게 묶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⁷⁾ 다시 말해 바람은 번뇌·망상이요 꽃은 본래 성품이니 번뇌·망상으로 하여금 불성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라 하였다. 이는 승속(僧俗)을 떠나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승려가 출가의 본분을 잊고 산다면 이 역시 무행공신(無行空身)⁸⁾의 삶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출가의 본분은 무엇인가. 계행을 지켜서 선정을 얻고, 지혜를 증득하여 해탈을 이루고, 해탈지건을 성취하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출가한 것입니다.⁹⁾

5) 원영, 「동국일타율사의 계율사상」,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국 일타스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p.228.

6) 일타, 『범망경보살계』, 다라니, 1992, p.42.

7) 동국은 부처의 일화를 말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라는 것은 꽃이 큰바람이 불어도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 놓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일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pp.107-109.

8) 무행공신(無行空身)은 수행하지 않는 헛된 몸둥이는 먹여 길러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뜻으로, 수행을 개을리하는 수도자를 질책하는 말이다. 『發心修行章』(H0025 v1, p.841b14-b16), “無行空身養無利益 無常浮命愛惜不保 望龍象德能忍長苦 期獅子座永背欲樂”

9) 일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p.111.

세속에 사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계행으로 무장을 하지 않고 출가 승려로 살게 되면 신도의 빛만 잔뜩 짙어지게 될 뿐 아니라, 불교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합니다. 계행으로 자신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흐리멍덩한 무행공신으로 이 한목숨을 마치는 것은 물론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물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모든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계행을 잘지키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쁜 습관과 그릇된 버릇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¹⁰⁾

위와 같이 일타는 계행을 수행에 첫걸음 또는 전제와 같은 것으로 보았는데, 달리 말하면 계행이 기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佛法)에 따라 수행하는 이가 아니라 보았던 것이다. 이에 일타는 “불자가 된 이는 누구나 계율을 준수하고 이것을 생활화하여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조심히서 방일을 멀리해야만 한다. 만일 계행을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면 이 사람은 벌써 불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¹¹⁾라 한 것이다. 또한 일타는 계율이란 불자로서의 정체성이라 보았다.

불자가 되려면 계를 받아야만 비로소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禪)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닦을 수 있고 교(敎)는 누구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불교 바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과 교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율만은 다릅니다. 오직 계율은 불교 집안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¹²⁾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타는, 계는 삼학의 시작이거니와 불자의 전유물이니 반드시 불자로서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계율을 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는 수행의 시작점이자 근본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의미를 내재함을 일타는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승의 의미가

10) 일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p.112.

11) 일타, 「此丘沙彌의 득도와 분한」,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p.334.

12) 일타, 『범망경보살계 1』, 다라니, 1992, p.41.

무엇인지 이하에서 살펴보자.

일타는 부처가 열반에 들기 직전 설한 『유교경(遺敎經)』의 다음 대목을 소개한다. “너희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에 든 뒤 마땅히 바라제목차를 존중하고 보배로이 공경하되, 마치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이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음과 같이 할지니라 마땅히 알라. 이것은 곧 너희들의 큰 스승이 될 것이니 만약 내가 세상에 더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이보다 더할 것이 없느니라.”¹³⁾라는 구절이 인용되면서 첨언하기를,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ratimoksyā)’는 곧 계율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율로써 스승을 삼을 것을 간절히 당부하셨습니다. … 중략 … 지금, 부처님께서 머물러 있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율을 으뜸가는 스승으로 받들고 준수해야 합니다.¹⁴⁾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 불가(佛家)에서 흔히 말하는 ‘자신의 등불을 스스로의 스승으로 삼아라[自燈明法燈明]’라는 대목과 다소 충돌되는 부분이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보다는 타율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일타가 말하고 있는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대방편 교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 ‘계’를 스승으로 하라는 것은 단순히 ‘계’는 곧 스승이니 그것만을 절대적으로 신봉(信奉)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혜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범부로서 계를 스승으로 하여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함이오[諸惡莫作] 선을 받들어 행함[衆善奉行]과 동시에 원만한 수행의 기반을 다지는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타는 “계법은 중생의 번뇌와 그에 따른 업을 청정하게 하여 해탈의 길을 보호

13) 『遺敎經論』(T26, 0283c05), “汝等比丘 於我滅後 當尊重珍敬波羅提木叉 如闇遇明 貧人得寶 當知此則是汝大師 若我住世 無異此也”

14) 일타, 『범망경보살계 1』, 다라니, 1992, p.43.

하는 대방편이다.”¹⁵⁾ 이라 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삼학의 수행의 첫 걸음으로써 ‘계행을 스승으로 삼아라’라고 한 것은 지혜가 없는 자로서 악업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며, 수행에 임하는 자로서의 기본 덕목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삼학의 시작은 계이지만, 이러한 ‘계’만으로는 불교 가르침의 종착인 깨달음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니, 계를 다하는 기반 위에서 반드시 참선 수행으로 정진할 때 증오(證悟)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일타의 수행적 단계는 반드시 계율을 기반¹⁶⁾으로 하여 정혜(定慧) 수행에 임하는 것이다. 이에 일타는 “계행이 없으면 선정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계의 그릇이 깨어졌으니 어찌 선정의 물이 담겨 있을 수 있겠습니까.”¹⁷⁾ 한 것이고, “물이 담겨 있어야 찌꺼기가 가라앉은 다음 고요히 맑은 물에 달이 비치어 지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의 그릇이 깨어져 물이 담길 수조차 없으니 선정도 지혜도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¹⁸⁾라 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부처님 당시에 도 계행을 바로 지키지 못한 이들은 일찌감치 수행을 포기하도록 하는 법[波羅夷罪]을 만드신 것이다.¹⁹⁾

15) 일타, 「此丘沙彌의 득도와 분한」,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p.334.

16) 수행면으로는 계·정·혜 삼학이라 하고 선·교·율로 나누어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필경에는 일체가 되는 것이지만 첫째, 계율이라 하는 것은 불자칠중[七衆]이 각기 받은바 계법으로 분한(分限)에 따른 자신의 행지(行止)를 바르게 다지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불살도움(不殺盜淫) 등의 행동질서와 입으로는 네 가지 망어를 앓는 등 언어의 질서와 생각으로 탐·진·치(貪·瞋·癡)를 멀리하는 등의 정신 질서를 바로 잡아 신구의 삼업을 조섭(調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율은 마치 삼층 누각에 기초가 되는 일층과 같아서 계로 인하여 성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서 지혜를 이룬다고 한 것입니다. 일타, 「此丘沙彌의 득도와 분한」,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pp.333-334.

17) 일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p.111.

18) 일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p.111.

또한 말하기를,

계행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열심히 계행을 지키면서 수행할 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길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지혜는 눈과 같고 계행은 발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눈이 없다면 발이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눈만 있고 발이 없다면 열반의 산을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지혜의 눈이 밝은 바람은 가야 할 길, 가지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간합니다.²⁰⁾

위와 같은 논리대로 라면 일타가 말하는 계라는 것은 범부로 하여금 제악막작(諸惡莫作)·중선봉행(衆善奉行)하고 정혜 수행에 기반으로서의 의미만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타의 ‘계’에 대한 개념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율사는 계·정·혜 삼학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선과 교학과 율을 통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교학을 거친 최후의 표출이 율이기 때문입니다.²¹⁾

이와 같이 본다면 일타가 말하는 계율은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대방편으로서의 ‘계’이고 다른 하나는 불지(佛智)에 기반한 각자(覺者)의 ‘계’이다. 방편으로서의 계는 경전 또는 선지식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이에 따르는 것이지만, 정혜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법을 밝힌 자는 행하고자 하는 바 없이 행하지만 그러한 행동이 계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정혜 수행의 결과로서의 ‘계’인 것이다.

19) 일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p.112.

20) 일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p.113.

21) 일타, 『범망경보살계 1』, 다라니, 1992, p.54.

계의 원어는 시라(尸羅)로서 바라밀(智慧=成佛=自覺=覺行)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인 동시에 그 바라밀을 영구히 지속하는 방편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계는 성불(바라밀)하는 과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불한 후에도 늘 계율이 필요한 것이다. 선정이나 성불의 경지에서는 계를 지킬 것도 없고 파할 것도 없는 무작계(無作戒)와 무루계(無漏戒)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계율을 아니 지켜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 계를 지키고 파할 것도 없이 으레 지켜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²²⁾

위와 같이 일타는, ‘계’는 바라밀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성불의 결과이며 불지(佛智)의 행인 것이다. 즉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고, 궁극의 ‘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수행이 필연적인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계율과 참선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가 말했던 선수행적 기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Ⅲ. 일타의 定慧수행 그리고 慈悲

1. 간화선에서의 大疑團과 誦話頭·念話頭

일타는 율사로서 세상에 더욱 알려져 있지만, 그의 수행체계 방점은 참선에 있다.²³⁾ 김경집 연구에서도 이미 논하였듯이 일타가 수행에 있

22) 일타, 「율종의 종지와 수행방법」, 『일타대중사법어집』, 동국문도회, 2002, p.92.

23) 선과 교와 율을 두루 통달하셨던 스님, 가시는 곳마다 바지의 족적과 깨달음의 법문을 남기셨던 스님, 스님께서는 늘 종단의 대법사요 대율사요 대선사로 추앙을 받고 계셨습니다. 어느날 저는 스님께 여쭙었습니다. “선과 율 가운데 스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하니 “당연히 선이지 내가 해마다 몇차례씩 보살계를 설하고 30대부터 인기법사가 되어 법문도 많이 하였지만, 나의 의지는 참선에 있어 선이 나의중심이야”라 하셨습니다. 일

어 계율을 강조한 것은 시대적 방편이라 보아야 한다.²⁴⁾ 즉 당시의, 한국불교 계율 체계가 허술하여 승속의 문화를 재정비하고자 일타는 일생을 바쳐 계율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²⁵⁾ 하지만 주지하는바 일타 수행체계의 종지는 참선이다. 실제로도 일타는 1954년 강원도 오대산 서대에서 혜암(慧菴, 1920~2001)과 하안거를 지내면서 동구불출(洞口不出)을 기본으로 생식(生食)·오후불식(午後不食)과 장좌불와(長坐不臥)로 일관하였으며²⁶⁾ 이어 1955년 경북 봉화에 있는 태백산 도솔암으로 들어가 일대사인연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수행정진 하였고, 그 기간이 무려 6년이였다.²⁷⁾

타,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5; 일타의 제자인 혜국 또한 일타는 시절 인연이 그러하여 율을 강조하긴 했지만, 나의 스승은 선사로서 살고 싶어하셨다고 회고한다. “우리 스님(일타스님)은 늘 선사로 살고 싶어 했죠. 그러나 한평생 율과 인연이 돼서 율사로 사셨습니다.” 원영, 『동국일타율사의 계율사상』,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국 일타스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p.230.

24) 김경집, 「동국 일타의 생애와 수행」,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국 일타스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pp.211-215.

25) “오늘날 말세의 불법(佛法) 중에 출가한 승니(僧尼)들이 삭발염의(削髮染衣)의 출가형상(出家形相)을 하고서 승단의 위신을 불고(不顧)하고 인과를 무시하고 계율을 경천(輕賤)한다면 이야말로 불종단멸(佛種斷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승단의 실정은 어떠한가. 칫쟁, 비구와 사미의 구분인 위계질서가 없다. 다 같은 가사, 장삼 법복(法服)을 입고, 사미로서 이미 ‘큰스님’ 행세를 하고 있으니, 너도 ‘중’ 나도 ‘중’으로 구족계란 가외(加外)의 것이라는 인상 속에 젖어 있다.” 일타, 『일타대종사법어집』, 동국문도회, 2002, p.160.

26) 일타는 오대산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두 하나만 갖고 살다가 죽겠다고 결심했는데 엉뚱한 일에 휩쓸리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 오대산으로 들어갔다. 굳은 심지가 없이는 생사 일대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연비 공양을 결심하였다. 손가락이 없으면 세속적인 모든 생각이 뚝 끊어질 것이고, 손가락이 없는 나에게 누가 사람 노릇 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타,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인과윤회가 보인다」,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p.313.

27) 김경집, 「동국 일타의 생애와 수행」,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국 일타스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p.315.; 당시에 대해 일타는 다음

일타의 선수행적 방법론은 간화선이 그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수식관(數息觀)을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적 기초 또는 방편으로 생각하였다.

정녕 아직까지 화두에 대한 발심이 되지 않았다면, 바르게 앉는 법과 호흡법부터 익히십시오. 이 호흡만 제대로 하여도 집중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빨라지며, 의지력이 강해지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헛된 근심 걱정들이 사라져 생활 또한 윤택해집니다.²⁸⁾

일타는 수행 방법론으로 수식관을 말하기도 하지만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두에 대한 발심이 일지 않을 때’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화두에 대한 발심이란 무엇인가. 일타가 말하는 화두 발심의 시작은 ‘대의단(大疑團)’의 유무에 있다.²⁹⁾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의심 그 자체에 묶여 오도가도 못하는 의심으로, 이러한 의심에서는 오직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심만 있을 뿐 그 어떤 알음알이나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일타는 의심에 들게 되면 예리한 낚시 바늘 고리가 ‘나’의 목구멍에 꼭 걸린 것과 같다고 하였다.³⁰⁾

과 같이 회고한다. “55년에 태백산에 들어가 60년까지 외적인 인연을 일체 단절하고 산 속 에서만 살았으니 나의 확실한 심증은 그 만 5년 동안의 정진 속에서 싹트고 열매 맺었다고 할 수 있지.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로 내게로 다가왔어. 내 생애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시간은 스물일곱에서 서른 두세 살까지의 도솔암 시절이었다고 믿어. 참으로 법열로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이철순, 「해인사 울주 일타스님」, 『海印』제 107호, 1991, p.14.

28) 일타,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p.65-67.

29) “견성 대오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바탕을 헤아려 보니, 애초에 선지식에 게서 법문을 듣고 화두의 의심 뭉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 대의단(大疑團)을 이루는 것이다” 일타, 『禪, 삼매로 가는길』 해인사 출판사, 1991, p.66.

30) 활구의 생명은 의심에 있습니다. 의심의 갈고리가 걸리는데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맥락에 말하기를,

활구의 화두가 되면 ‘왜? 어째서? 무슨 뜻인가?’ 하는 ‘의심’의 갈고리만이 ‘나’를 가득 채우고 주의를 가득 메웁니다. 어떤 고상한 이론과도 벗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답을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의심’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구요 진짜 간화선입니다.³¹⁾

위와 같이 공안은 의심을 묶기 위한 하나의 방안³²⁾에 불가하다. 본질은 공안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의심 덩어리 한데 묶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³³⁾ 때문에 공안을 바꾼다고 해서 발(發)하지 않던 의심이 발하는 것은 아니다.³⁴⁾ 이에 일타는 “화두를 바꾸지 않고 한 가지 화두로써 꾸준히 정진해 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³⁵⁾라 말하며 화두를 자주 바꾸는 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한다.

리한 낚시 고리가 ‘나’의 목구멍에 딱 걸렸다고 합시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그 고리를 제거하는 데만 집중을 할 것입니다. 활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를 찌른 의문의 고리를 풀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 이렇게 되면 저절로 활구가 됩니다. 일타,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96.

31) 일타,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95.

32) 일타는 공안은 의심 덩어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았다. 일타, 『일타큰스님 법어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효림, 2003, p.140.

33) 공안을 드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심을 묶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다. “일념으로 이론 뒤에는, 화두에 대한 큰 의심을 너의 마음에 튼튼히 세워 침식을 잊어버리고 선악에도 관계없는 무심도인(無心道人) 절로 되어 사람들의 온갖 칭찬에도 무심하고 온갖 비방에도 무심하여야 한다.” 일타, 『禪, 삼매로 가는길』 해인사 출판사, 1991, p.64.

34) 단, 일타는 두 가지 경우에 화두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첫째는 도가 높은 선지식이 수행자의 공부를 점검한 다음 화두를 바꾸어 줄 때 두 번째는 뚜렷한 계기가 다가와 화두를 바꿀 때이다. 첫째의 경우 만공(滿空) 스님의 일화를 들어 설명하고 둘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타 자신의 일화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p.131-137.

35) 일타,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128.

이(화두를 자주 바꾸는 것)는 마치 쥐가 쌀 뒤주를 뚫을 때 여기저기를 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는데 이 길로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온 다음 다시 저기길을 택하여 올라가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나 꼭 같습니다. 그 결과 쌀 뒤주는 풀리지 않고 대청봉은 요원하지만 하며 세세생생을 닦아도 도는 깨칠 수가 없습니다.³⁶⁾

위 일타의 비유와 같이 화두를 꾸준히 들고 있는 것은 뒤주를 뚫는 과정이요 산을 오르는 과정과 같은 것이니 화두를 바꾼다고 해서 안 뚫리던 뒤주가 갑자기 뚫리고, 과정도 없이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은 없는 것이다. 하나의 화두에 천착하여 비로소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 도저히 그것을 놓을 수가 없다면 이는 마침내 공부의 길이 잡힌 것이다.”³⁷⁾ 정리하자면 일타는 한국 선종 전통을 계승하여 간화선 수행을 주로 했으며, 이러한 간화선 수행에 있어 일타는 의단(疑團)과 화두를 일념으로 꾸준히 수행하는 것을 수행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참선을 하는 이들을 위해 두 가지 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간화선 수행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입니다. 화두에는 좋은 화두 나쁜 화두가 따로 없습니다. 초점은 의심입니다. … 중략 …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 중략 … 이것 외에는 참선하는 사람에게 따로 필요한 말이 없습니다.³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타의 간화선 수행의 핵심은 의심³⁹⁾과 꾸준한 화두 참구⁴⁰⁾이다. 그렇다면 꾸준한 화두 참구를 위해 일타가 말하는 수

36) 일타,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128.

37) 일타, 『禪, 삼매로 가는길』, 해인사 출판사, 1991, p.75.

38) 일타,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p. 217-218.

39) “화두에 대한 의심이 펄펄 살아있는 활구와 함께하게 되면 깨달음이 결코 멀지 않습니다.” 일타,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101.

40) “번뇌 망상과 줄음이 자주 찾아올지라도 한 가지 화두를 생명줄로 삼고

행 방법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송화두(誦話頭)이다. 송화두는 일타가 도솔암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실참에 의한 경험적 지혜로 보인다.⁴¹⁾ 송화두는 부처님 명호를 외우듯이 마음속으로 화두를 외우는 것인데, 송화두라는 용어는 일타의 고유 조어로 보인다. 이러한 송화두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 화두를 꾸준히 하는 방법론인데, 화두를 드는 과정에서 알아알이 또는 분별심이 일어나거나 수마(睡魔) 또는 혼침(昏沈)으로 멍멍하여 화두가 뚜렷하지 않을 때 본 방법이 용이했음을 일타는 말하고 있다.

송화두를 계속하다 보면 생각으로 화두를 드는 염화두(念話頭)가 되고 염화두가 지속되면 행주좌와(行住坐臥)에도 화두가 성성하게 된다고 일타는 말한다. 거기서 대용맹심이 발(發)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활구(活句)가 되어 참화두가 된다고 말한다.

화두는 마치 열쇠와 같아서 의문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팔만사천 법문을 가득 차 있는 근본 마음의 문을 열어 부처를 이루게 하는 도구요 방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두가 잘되지 않으면 부처님 명호를 외우듯 속으로 화두를 외우는 송화두라고 해야 하고 그게 계속되다 보면 생각으로 화두를 드는 염화두가 됩니다. 염화두가 지속되면 일을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화두가 또렷하게 들리는 간화두가 되고 거기서 대용맹심을 발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참화두가 되는데 참화두만 되면 깨침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⁴²⁾

꾸준히 꾸준히 열심히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의식하지 않더라도 화두가 저절로 생생하게 들리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화두가 저절로 생생하게 들리면 깨달음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일타,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128.

41) 일타,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인과윤회가 보인다」,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p.314.

42) 일타,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인과윤회가 보인다」,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pp.314-315.

앞서 살펴본 일타만의 선수행적 방법론 특징은 송화두(誦話頭)를 통한 염화두(念話頭) 그리고 염화두를 통한 활구(活句)에 있다고 하겠다.⁴³⁾ 이와 같이 본다면 일타의 간화선 수행 방법론은 여타 선사들에 비해 그 체계가 분명하고 명료하다 하겠다.

정리하자면 일타는 참선 수행에 있어 간화선을 주로 했으며 간화선 수행 방법론으로는 공안 또는 화두를 끊임없이 외는 송화두(誦話頭)를 통해 염화두(念話頭)로 나아가고 염화두로 나아가게 되면 상시 의심이 성성하게 되는데 그때 대용맹심으로 정진하면 참화두가 되니 이와 같이 되었다면 증오(證悟)는 멀지 않은 것이다.

2. 定慧수행과 自利利他

본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참선 수행과 지혜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이후 그러한 지혜가 자비 또는 자리이타(自利利他)로 나아가는 논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일타가 말하는 참선과 지혜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다.

오직 화두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되나니 바로 이것이 대반야지혜의 빛입니다. 이 지혜의 빛은 자신의 마음자리, 곧 자성심을 보게하고 자성을 보게 되면 천지와 내가 한 뿌리요 만물과 내가 한 몸이 됩니다. 그러한 때에 내가 하는 바는 모두가神通묘용(神通妙用)이 아닐 수 없습니다.⁴⁴⁾

43) 의단(疑團)의 경우 선종사에서 늘 강조되었던 바이고, 특히 근현대 한국 불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 백용성(白龍城, 1864-1940)의 『수심론(修心論)』 4, 5장에서 의단의 중요성을 대두시킨 박산무이의 『참선경어(參禪警語)』 3장[시의정발불기경어(示疑情發不起警語)]과 4장[시의정발득기경어(示疑情發得起警語)]의 글을 퍼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허성우(鏡虛惺牛, 1849-1912)의 『선문촬요(禪門撮要)』 상권에서 또한 『참선경어』를 인용하면서 간화선에서의 의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일타의 표현대로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되나니”라 하여 선정[定]과 지혜[慧]가 서로 즉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준 보조 지눌 국사 또한 상세히 밝히고 있다.

문기를, 깨달은 뒤 점차 닦는 문[後修門]에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지닌다[定慧等持]는 뜻을 실로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어서, 저의 미혹을 자세히 열어 보이시어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지눌이) 답하기를, 만약 법과 의[法義]를 시설해서 말한다면, 이치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이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그 근본적 요점을 들면 곧 자기 성품[自性上]의 본체와 작용[體用] 두 가지 뜻이니, 앞에서 말한 비고 고요함[空寂]과 신령스런 앎[靈知]이 그것이다. 선정은 본체이고 지혜는 작용이다. 그런데 본체에 즉한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작용에 즉한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선정은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고, 지혜는 곧 선정이므로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다.⁴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선을 닦는 수행은 지혜⁴⁶⁾를 밝히기 위한

44) 일타,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p.218-219.

45) 『修心訣』(H0068 v4, p.711c13-c18), “問 後修門中 定慧等持之義 實未明了 更爲宣說 委示開迷 引入解脫之門 答 若設法義 入理千門 莫非定慧요 取其綱要 則自性上體用二義 前所謂空寂靈知是也. 定是體 慧是用也 卽體之用故 慧不離定 卽用之體故 定不離慧 定則慧故 寂而常知 慧則定故 知而常寂.”

46) 일타가 말하는 지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지혜란 어떠한 것인가. 지는 간택한다는 뜻이요, 혜는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잘 간택하고 잘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사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탐욕과 분노에 빠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매사에 잘 헤아리고 살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일타에게 지혜라는 것은 간택과 결정인 것이니, 즉 지혜란 시비(是非)·선악(善惡)을 능히 하는 능력인 것이다. 일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p.119.

수행과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참선 수행으로 말미암는 지혜는 윤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불가(佛家)에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지식적·사회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물의 실상(實相)을 꿰뚫는 불지(佛智)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불지는 세상의 무상(無常)함과 만물이 연기(緣起)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대(四大)는 허상이며 십이처(十二處)는 망상임을 알아 실상(實相)을 관철하여 추호의 아상(我相)이 없고 이러한 아상이 없음으로 자타를 서로 분별하지 않으니[自他不二] 자리이타(自利利他)는 능히 무위로 실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인과 만물을 대함에 ‘나’ 아님이 없음⁴⁷⁾으로 자신을 돌보듯 만인과 만물을 평등히 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타는 “지혜가 있으면 욕심과 집착이 없어질 것이다.”⁴⁸⁾라 한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혜[佛智]가 있다면 욕심과 집착이 생길 개연성 자체가 차단된다. 왜냐하면 아상이 있음으로 하여 욕심과 집착이 발(發)하기 때문이다. 일타는 원효를 인용하여 “지혜와 행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리이타를 닦는 일은 새의 양쪽 날개와 같다.”라고 하고, 이어 자신의 말을 덧붙이길 “자리이타냐 이타자리냐 하는 것은 관념의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⁴⁹⁾라 말하며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자타의 개념 자체가 허망한 것임으로 말하고, 지혜[佛智]와 자비는 서로 맞물려 돌아감 또는 서로 의지하여 나아감을 말하고 있으니, 지혜 있는 자는 자비로 나아가게 되고, 무주상보시(無主相布施)를 능히 행하는 자는 지혜가 더욱 밝혀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타의 계행을 둘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⁵⁰⁾ 첫째는 지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의 계행과, 둘째 지혜가 밝은 자의 계행이다. 첫째의 경우 즉, 범부일 때의 계행은 의도적이고 타율적이라

47) 반대로 세상 만물 또는 만인에 ‘나’라고 할 것 또한 없다.

48) 일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p.114.

49) 일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pp.124-125.

50) 일타의 ‘계’에 대한 개념은 본 연구 2장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이라 할 것이고, 둘째의 경우 즉, 각자의 계행은 지혜에 의한 자율적이고 무위적 행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타는 선정[定]에 즉해 지혜[慧]가 밝아지고 이와 같이 지혜가 밝아지면 분별하거나 간택함이 없어 모든 세상 만물의 경계가 무너지니 자타불이의 실상은 능히 알게 되어 자리아타로 자연히 나아감을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론체계 또는 진리는 일타의 전 생애를 관통하여 실천되고 있으며⁵¹⁾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했다.

수행 정진에 힘쓰면 마음이 공해집니다. 공(空)해지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그 빛은 밖으로까지 뻗쳐 나와 그 빛을 받는 주위 사람들까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상좌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내가 몸을 벗으면 바로 그 곳에서 화장을 해서 3등 분하되 한 움큼은 큰 고무풍선에 매달아서 허공에 실어 보내고 또 한 움큼은 찰밥에 섞어 산에 흩어주며 나머지는 강이나 바다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와 산짐승 그리고 물고기의 밥이 되도록해 달라고요.⁵²⁾

이처럼 일타의 참선 수행이라는 것은 결코 자리(自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이타(利他)로 필히 나아감을 말하고, 이와 같은 행은 곧 ‘자비’로 나아감을 자신의 삶으로써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수행과 자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일타의 축원에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佛法)은 자비와 지혜의 대도(大道)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무한한 능력 이것을 개발함이 지혜이며 저 사바의 번뇌 속에 오직 중생만

51) 묘주스님은 일타스님의 삶은 자비 그 자체였음을 회고하고 있다. 묘주, 「동곡당 일타 큰스님의 교화행과 그 의의」,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pp.297-301.

52) 일타,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인과윤회가 보인다」,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p.316-317.

을 위해 사는 것이 불보살의 대자대비입니다.”⁵³⁾, “부디 계행과 지혜, 자리와 이타와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⁵⁴⁾

IV.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삼학[三學; 戒·定·慧]을 중심으로 일타의 수행론적 기초와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최대한 다수의 일타 관련 서적 및 인터뷰를 인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본 주제(일타 수행론)가 기초적 단계이니만큼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하와 같다. 첫째, 일타가 말하는 계율은 두 차원으로 나누어 해석되었다. 하나는 대방편으로서의 ‘계’이고, 다른 하나는 불지(佛智)에 기반한 각자(覺者)의 ‘계’이다. 방편으로서의 ‘계’는 경전 또는 선지식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는 인위적이고 타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제악막작(諸惡莫作)·중선봉행(衆善奉行)하기 위함이었다.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불지(佛智)가 능히 밝은 자(覺者)는 불지에 기반하여 행하기 때문에 그 행에는 한치도 ‘계’에 어긋남이 없다. 이에 대해 일타는 “선정이나 성불의 경지에서는 계를 지킬 것도 없고 파할 것도 없는 무작계(無作戒)와 무루계(無漏戒)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계율을 아니 지켜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 계를 지키고 파할 것도 없이 으레 지켜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⁵⁵⁾라 말하며 선정[定]과 계[戒]의 깊은 관

53) 일타, 「曹溪叢林 佛日會 發起趣旨文」,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p.348.

54) 일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p.125.

55) 일타, 「율종의 종지와 수행방법」, 『일타대중사범어집』, 동곡문도회, 2002, p.92.

계성을 밝히고 있다.

둘째는 일타의 간화선 수행론에 대한 부분이다. 일타는 화두의 발심은 ‘의단(疑團)’에 기초한다고 보는데, 그 의심은 꾸준한 화두 참구에 의해서 발(發)하는 것이었다. 이에 일타는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두를 바꾸는 것을 허(許)하지 않았다. 꾸준한 화두 참구 방법론으로 일타가 제시하는 방법은 ‘송화두(誦話頭)’이다. 송화두는 일타가 도술암 수행과정에서 실참을 통해 얻은 경험적 방법론 또는 지혜로,⁵⁶⁾ 송화두는 부처님 명호를 외우듯이 마음속으로 화두를 외우는 것인데, 송화두라는 용어는 일타의 고유 조어로 보인다. 송화두를 계속하다 보면 생각으로 화두를 드는 ‘염화두(念話頭)’가 되고 염화두가 지속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 모든 시에 화두가 성성하게 되고, 거기서 대용맹심을 발(發)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활구(活句)가 되어 참화두가 된다고 말한다.⁵⁷⁾ 정리하자면 일타는 참선 수행에 있어 간화선을 주로 했으며 간화선 수행 방법론으로는 화두를 끊임없이 외는 송화두(誦話頭)를 통해 염화두(念話頭)로 나아가고 염화두에서 대용맹심을 내어 한발 더 나아가면 곧 활구를 들게 되니 이와 같이 되면 증오(證悟)가 멀지 않다고 하였다.

셋째, 수행과 자비에 대한 부분이다. 일타는 “참선을 통해 선정에 들면 절로 고요해지고 맑아지며 밝아지게 되니 이러한 빛이 곧 대반야지

56) 일타,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인과윤회가 보인다」,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p314.

57) “화두는 마치 열쇠와 같아서 의문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팔만사천 법문을 가득 차 있는 근본 마음의 문을 열어 부처를 이루게 하는 도구요 방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두가 잘되지 않으면 부처님 명호를 외우듯 속으로 화두를 외우는 송화두라고 해야 하고 그게 계속되다 보면 생각으로 화두를 드는 염화두가 됩니다. 염화두가 지속되면 일을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화두가 또렷하게 들리는 간화두가 되고 거기서 대용맹심을 발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참화두가 되는데 참화두만 되면 깨침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일타,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인과윤회가 보인다」,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pp.314-315.

혜⁵⁸⁾라 하면서 선정과 지혜는 서로 즉하여 일어나니 정(定)의 수행과 지(智)의 수행이 별도의 수행이 아니라 하였다. 이와 같은 지혜가 밝은 자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만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한 뿌리임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논리를 자세히 말하자면, 지혜가 밝혀지면 세상 만물이 본디 무상(無常)하고 연기(緣起)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대(四大)는 허상이며 십이처(十二處)는 망상임을 알아 실상(實相)을 관철하여 추호의 아상(我相)도 없게 된다. 이에 아상이 없음으로 자타를 서로 분별하지 않으니[自他不二] 자리이타(自利利他)는 능히 무위로 실현 되는 것이었다.

58) 일타,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pp.218-219.

참고문헌

<원전류>

- 『發心修行章』
- 『遺教經論』
- 『參禪警語』
- 『禪門撮要』
- 『修心訣』
- 『修心論』

<논문류 및 단행본>

- 김경집, 「동곡 일타의 생애와 수행」,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 김광식, 「일타의 지성적 노선과 조계종단의 좌표」, 『佛敎研究』 제46집, 한국불교연구원, 2017.
- 신규탁, 「동곡 일타 대종사의 불교관과 그의 선사상」, 『韓國佛敎學』 제80집, 한국불교학회, 2016.
- 신규탁, 「동곡 일타 대종사의 선사상」,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 염중섭, 「한국불교의 계율적인 특징과 현대 조계종의 계율전통 -자운(慈雲)과 일타(日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0,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8.
- 묘 주, 「동곡당 일타 큰스님의 교화행과 그 의의」,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 원 영, 「동곡일타율사의 계율사상」,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 이철순, 「해인사 울주 일타스님」, 『海印』 제107호, 1991.
- 일 타, 『발심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2018.
- _____, 『일타대종사법어집』, 동곡문도회, 2002.
- _____, 『범망경보살계 1』, 다라니, 1992.
- _____, 『禪, 삼매로 가는길』, 해인사 출판사, 1991.

- _____,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1992.
_____,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효림, 2000.
_____, 『선수행의 길잡이』, 효림, 2013.
_____, 『시작하는 마음』, 효림, 1993.
_____, 『오계 이야기』, 효림, 2013.
_____,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Abstract

Donggog Ilta[東谷 日陀]'s Theory of Performance
- Focusing on San-xue[三學] -

Kim, Jong-yong
(Buddhist Culture & Social Affairs, Researcher Dongguk Univ., W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Ilta [日陀]’s theory of performance centered on San-xue [三學 : 戒 · 定 · 慧].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topic, this researcher conducted research by citing as many books and interviews related to Ilta [日陀] as possible. This was to minimize arbitrary interpretation as this topic (Ilta[日陀] performance theory) is a basic step.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topic, this researcher conducted research by citing as many books and interviews related to Ilta [日陀] as possible.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his was to minimize arbitrary interpretation as this topic (Ilta[日陀] performance theory) is a basic s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ie[戒] spoken by Ilta[日陀] could be interpreted in two parts. One is ‘Jie[戒]’ as a means, and the other is ‘Jie[戒]’ of an enlightened person based on Buddha’s wisdom. ‘Jie[戒]’ as a means is to follow the guidelines handed down from scriptures, so ‘Jie[戒]’ as an ordinary person can be said to be artificial and heteronomous. The next is ‘Jie[戒]’ based on Buddha’s knowledge. Through the practice of Ding-hui[定慧], those who are bright in their Buddha wisdom act unconsciously. These actions of an enlightened person do not contradict ‘Jie [戒]’. The ‘Jie[戒]’ of the

enlightened is autonomous by wisdom and is also the act of Mu-wi[無爲]. The second part is about Ilta[日陀]’s theory of Ganhwa Seon practice. Ilta[日陀] believes that the origin of Huadu[話頭] is based on ‘doubt[疑團]’, and that doubt was initiated by steady practice of Huadu[話頭]. Accordingly, Ilta [日陀] did not allow the change of the hwadu except for a few special cases. The method suggested by Ilta [日陀] as a methodology for steadily exploring the topic is ‘Song-hua-tou [誦話頭]’.

Songhuadu seems to be the empirical wisdom that Ilta [日陀] practiced on his own in the course of Dosolam [兜率庵]. Song-hua-tou [誦話頭] is to memorize Huadu [話頭] mentally, just like reciting the Buddha’s name.

As Song-hua-tou [誦話頭] continues, it becomes ‘Nian-hua-tou [念話頭]’ holding Huadu [話頭] with thoughts, and when Nian-hua-tou [念話頭] continues, it always becomes Huadu [話頭] is in the mind. From there, it is said that if you make more effort and go one step further, you will reach enlightenment. To sum up, Ilta [日陀] mainly did Kan-hua-seon [看話禪] in meditation practice, The methodology for practicing Kan-hua-seon [看話禪] is to do Song-hua-tou [誦話頭], constantly thinking of Huadu [話頭]. When you get used to Song-hua-tou [誦話頭], you go out to Nian-hua-tou [念話頭], and when you become Nian-hua-tou [念話頭], you always have doubts in your mind. At this time, if you make an effort and go one step further, you can achieve enlightenment. Third, it is about practice and compassion. Ilta [日陀] says that when one enters Chan-ding [禪定] through Zen practice, ‘it automatically becomes calm, clear, and bright, and this light is called Da-bo-re-zhi-hui [大般若智慧]’ The wisdom revealed by the same Chan-ding[禪定] is no different from the Buddha’s wisdom. At the same time, it is said that those who are bright in wisdom come to know that they, others, and all things are one root. To put this logic in detail, when wisdom is revealed, nothing is eternal in the world [無常], each depends on the other [緣起], and knowing that the human body is an illusion and human feelings are delusions, and knowing the true world [real world], there is no subject [我

相] called 'I' at all.

Therefore, since there is no Wo-iang [self-image], oneself and others do not differentiate [自他不二], and Zi-li-li-ta [自利利他] can be realized as Mu-wi [無爲]. This logic is the same as the above-mentioned enlightened person who is able to practice Jie [戒].

Key words

Donggog Iita[東谷日陀], San-xue[三學; 戒定慧], Jie[戒], Kan-hua-seon[看話禪], Buddhist Ethics